

순천시 '최적 생활환경' 세계 인증

'2024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발상의 전환, 오천그린광장'
도심 속 저류지 시민 공간으로
시민들 이용도 등 긍정 평가



순천시가 최근 UN-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2024아시아도시경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2024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해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 도시의 모범이 되거나 성과를 이룬 도시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이번 시상식은 아시아 지역 예비심사와 국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한국·중국·홍콩·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이 본상에 올랐으며, 이중 순천시는 '발상의 전환! 도시공간 혁신의 새로운 시작-오천그린광장&그린아일랜드'를 주제로 응모해 본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순천시의 수상작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시가지 사이의 재해예방 저류시설 및 4차선 도로를 녹지공간으로 전환하여 도심과 국가정원을 연결한 수변 녹지공원의 완성도와 시민들의 이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4차선 도로를 녹지공원으로 전환하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은 심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심 속 저류지를 광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광장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 생태축을 도심까지 끌어들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옥에서 티코스를 경험하며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이와 함께 ▲인구조별미기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화된 복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체감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2026여수세계세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본격화를 위해서는 ▲세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사업비 225억5000만원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8억6000만원 ▲개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20억원 ▲세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8억원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사업 18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임시정차 신축 25억원 ▲여수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 1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13억3000만원 ▲운수종사자 편의 및 휴게시설 설치 26억2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모도 LNG 허브 터미널) 100억원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16억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1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중심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는 ▲관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천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울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전라남도-여수시 출생 기본 수당 18억2000만원 ▲여수형 청년일대 주택 지원 16억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1억8000만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62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청년인턴(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9억5000만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8억6000만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9000만원 등이다.

▲관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천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울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의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전라남도-여수시 출생 기본 수당 18억2000만원 ▲여수형 청년일대 주택 지원 16억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1억8000만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62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청년인턴(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9억5000만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8억6000만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9000만원 등이다.

▲관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천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울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의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전라남도-여수시 출생 기본 수당 18억2000만원 ▲여수형 청년일대 주택 지원 16억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1억8000만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62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청년인턴(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9억5000만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8억6000만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9000만원 등이다.

▲관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천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울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여수시 내년 예산 1조 4825억 편성...1.7% 증액

섬박람회 준비 225억·출산장려 51억 등...경제 회복·복지 등 증점

여수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1조482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7%(25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오는 21일 시의회에 제출된다고 21일 밝혔다.

시 예산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6일경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26여수세계세박람회 준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및 복지·안전·민생경제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 예산 대비 다소 증액 편성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섬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사업비로 225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51억 5000만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00억원 등의 굵직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 대규모 현안 사업인 2026여수세계세박람회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2025년도 마무리 사업 등 시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구조별미기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화된 복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체감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2026여수세계세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본격화를 위해서는 ▲세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사업비 225억5000만원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8억6000만원 ▲개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20억원 ▲세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8억원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사업 18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임시정차 신축 25억원 ▲여수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 1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13억3000만원 ▲운수종사자 편의 및 휴게시설 설치 26억2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모도 LNG 허브 터미널) 100억원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16억원

▲관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천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울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곡성군, 으뜸한우 2관왕

전남도 암송아지·고급육 부문

곡성군이 전라남도의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나주축협에서 열린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겸업 이금숙 농가가 우량한우 암송아지 부문 '우수상', 육과면 최하나 농가가 고급육 부문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사진)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암소 개량 성과를 측정하고, 우수형통을 발굴하여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한우가 6개 부문(우량한우 5개 부문, 고급육 1개 부문)에서 경합을 펼쳤다. 출품축 99마리(우량한우 73, 고급육 26)를 종합 심사한 결과, 우량한우



20마리와 고급육 3마리가 최종 선정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한우 개량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린 한우 사육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한우 개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통감하고, 우수형통 발굴을 통하여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한우 개량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린 한우 사육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한우 개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통감하고, 우수형통 발굴을 통하여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나주축협에서 열린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겸업 이금숙 농가가 우량한우 암송아지 부문 '우수상', 육과면 최하나 농가가 고급육 부문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사진)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암소 개량 성과를 측정하고, 우수형통을 발굴하여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한우가 6개 부문(우량한우 5개 부문, 고급육 1개 부문)에서 경합을 펼쳤다. 출품축 99마리(우량한우 73, 고급육 26)를 종합 심사한 결과, 우량한우

20마리와 고급육 3마리가 최종 선정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한우 개량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린 한우 사육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한우 개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

곡성군,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앞장

치매극복 선도단체 3곳 신규 지정 현판 전달식

곡성군이 최근 치매 극복 선도단체 3곳을 잇따라 지정하며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관내 기관 고달우체국과 식당 '짬뽕나라'에 이어 18일 곡성로템주변보호센터를 치매안심선도기관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 극복활동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사업자로서 치매안심선도기관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나뉜다. 이들 단체 및 가맹점은 구성원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해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정 된다.

곡성군이 지정한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지난

2018년 전남과학대를 1호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17곳이며, 이 중에는 대학교·중학교 각각 1곳, 도서관 3곳, 기관 6곳, 개인사업장 6곳이다.

이들의 구체적 활동은 단체의 자원과 재능을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치매 인식개선 홍보활동, 치매 조기검진 연계,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 임시 보호 및 신속한 신고 등으로 치매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편,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등은 치매안심센터(061-360-8981)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관내 기관 고달우체국과 식당 '짬뽕나라'에 이어 18일 곡성로템주변보호센터를 치매안심선도기관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순천 한옥에서 차 한잔 나누며 '쉼'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순천시 제공)

'힐링 순천: 차 그리고 쉼' 운영
야생차체험관서 '티 오마카세'
30일 등 4일 하루 두 차례 시행

'차 한잔 마시며,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순천시가 오는 30일부터 '힐링 순천: 차 그리고 쉼' 프로그램을 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 운영한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 즐겁게 하는 건강관리)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티 오마카세'를 순천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숲속 고즈넉한 한옥에서 느끼는 온전한 쉼'을 주제로 이번 프로그램은 한옥에서 티코스를 경험하며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객들은 전문가의 잔잔한 설명을 들으며 녹차, 말차 등 4종의 차와 함께 어울리는 다식을 맛보고 단감 타르트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 8일, 14일 4일간 운영하며, 하루에 두차례씩(오후 1시, 오후 3시 30분)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 2만원으로 순천시 바로예약 사이트(<https://www.suncheon.go.kr/yeyak/experience/0001/0002>)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순천에서 차 문화의 다채로움을 알고 온전한 쉼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가족들, 친구들 또는 연인과 함께 오셔서 새로운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나주축협에서 열린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겸업 이금숙 농가가 우량한우 암송아지 부문 '우수상', 육과면 최하나 농가가 고급육 부문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사진)

SK, 추위 녹이는 뜨끈한 '이웃사랑'

이노베이션 E&S, 광양 저소득층에 5000만원 지원



광양시는 지난 18일 SK이노베이션 E&S 광양 천연가스발전소(대표이사 추형욱)가 광양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장학금 및 생활 안정금 5000만원을 기탁(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양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전달된 장학금 및 생활 안정금 5000만 원은 광양시청 주민복지과에서 추천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 80명, 광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추천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진성 SK이노베이션 E&S 광양발전소장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마음이 흐뭇하다. 지원받은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

다.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SK이노베이션 E&S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충세 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처장은 "광양시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E&S 광양천연가스발전소 이진성 소장과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부메랑이 되어 SK이노베이션 E&S가 번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경기침체 상황에도 소외 없이 내실 있는 기부를 해주신 SK이노베이션 E&S에 감사드린다"며 "SK이노베이션 E&S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나주축협에서 열린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겸업 이금숙 농가가 우량한우 암송아지 부문 '우수상', 육과면 최하나 농가가 고급육 부문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사진)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소외이웃 '의료봉사'

군민·장애인 200여명 대상...영양제 투여·혈압 검사 등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6일 구례지역 의료취약계층 지역민과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의료봉사'를 펼쳤다.

'사랑의 의료봉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나눔의료봉사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3년째 진행되고 있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별관에서 실시한 이번 의료봉사에는 전라남도순천의료원 '두름박봉사단'과 순천제일대학교 의료재활과도 참여했다.

'두름박봉사단'은 김대연 의료원장과 비뇨의학과 정주영 과장의 1대1 진료와 영양제 투여 및 혈압검사를 시행했고, 의료재활과는 불을 활용한 전신마사지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사회네트워크 9개 기관에서도 대상자 참여 독려 및 홍보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장애인과 장애인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차나눔봉사를 진행하였으며, 구례제가복지센터와 구례병원에서는 참여자 200명의 간식을 지원하는 등 모든 네트워크 기관이 참여해 보다 의미 있고 뜻깊은 사업으로 진행됐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송태영 관장은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이번 사랑의 의료봉사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례 지역민들과 장애인분들이 복지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유관기관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나주축협에서 열린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겸업 이금숙 농가가 우량한우 암송아지 부문 '우수상', 육과면 최하나 농가가 고급육 부문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사진)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나주축협에서 열린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겸업 이금숙 농가가 우량한우 암송아지 부문 '우수상', 육과면 최하나 농가가 고급육 부문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사진)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나주축협에서 열린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겸업 이금숙 농가가 우량한우 암송아지 부문 '우수상', 육과면 최하나 농가가 고급육 부문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사진)